

한국문화교류 소식

43호 2022년 3월 15일 발행·발행인 위호인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International Center for Korean Culture(ICKC)

04173 서울시 마포구 삼개로 16, 408호(도화동, 근신빌딩 신관)

전화 02-2285-1070 팩스 02-2285-5070 메일 hangyobon@gmail.com 홈페이지 www.ickc-seoul.net



“역지사지(易地思之)” 거울로 비춰 본 동물사랑 · 생명존중 운동



심 의 표

ICKC 운영위원, 전 KBS 부산총국장

유실 · 유기 반려동물 증가, '강건너 불' 아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해 4월 발표한 '2020년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 결과 발표를 보면 우리나라 반려동물 양육 가구 수는 638만여 가구,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약 1,53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해 전인 2,019년 조사 때보다 무려 110여만

명이 늘었다. 지난해(21년) 수치는 정확한 통계결과가 나와야 알 수 있겠지만, 지난 몇 년간의 추세에 비추어 보면 적게 잡아도 일단 천 6백만 명은 넘어섰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2020년, 반려동물 양육 가구 비율이 우리나라 전체가구 대비 27.7%(전년 대비 1.3%p 상승)이었으니, 이 역시 추세로 보아 지금은 30%선 전후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세 가구 중 한 가구는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셈이다. 햄스터나 토끼, 앵무새 등 다양한 동물들을 기르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역시 전체 조사대상 81.6%를 차지한 개, 28.6%로 나타난 고양이가 반려동물의 주종을 이루고 있다.

반려동물 개체수가 갈수록 증가하는 만큼 길을 잃거나 버려지는 유실 · 유기동물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은 보기에 따라서는 자연스런 현상이라고 할 수도 있겠다. '동물자유연대'가 금년 초 펴낸 「유실 · 유기동물 보고서」를 보면 지난 한 해 12만 마리에 가까운 반려견이나 고양이가 집을 잃거나 길

“말 못하는 개의 마음과 생각을 읽을 수 있게 된다면,

하물며 말을 하는 사람의 마음이야

당연히 더 잘 알 수 있지 않겠는가?”

_ 이견희 전 삼성 회장님과의 인터뷰 중

거리에 버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해 전인 2020년 보다 만여 건이 줄어든 숫자라고 하나, 이는 극심한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동반한 외출을 부득이 자제할 수밖에 없었던 일시적 감소현상이라는 설명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유실·유기동물 중 그나마 가족을 되찾아가거나 입양이 된 경우는 열 마리 중 네댓 마리 정도이고 나머지는 안락사, 또는 자연사 한 것으로 나타났다. 언젠가 코로나 회오리가 지나가면 훨씬 더 많은 유실·유기동물들이 도회의 골목이나 농·어촌의 들판과 바닷가를 돌아다니거나 서성댈 것은 쉽게 짐작할 수가 있다.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 노력 절실

지난해 9월, 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이 확정, 발표한 ‘유기 반려동물 관리체계 개선방안’은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를 예방, 또는 최소화 하고 구조·보호를 강화하는 개선방안을 폭넓게 담고 있다. 이미 발생된 유실·유기동물을 돌보거나 다시 주인을 찾아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에 앞서 미리 예방조치를 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이 당연히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아직 38%(2020년 말 기준) 선에 그치고 있는 반려동물 등록률을 빠른 시일 안에 어떻게든 선진국 수준인 70%까지는 끌어 올리

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아울러 유기동물 개체 수 증가 예방책의 하나인 실외사육견 중성화 사업 활성화도 속도를 더해야 한다. 정부의 개선방안 내용에는 아직 미미한 수준인 실중성화 실적을 금년 말까지 5%, 그리고 4년 뒤인 '26년 말까지는 85% 선까지 끌어올린다는 기대해봄직도 하다. 유기된 반려동물의 구조·보호를 위한 위탁 동물보호센터 확충, 민간 동물보호시설 신고제 도입에 따른 양성화, 그리고 정보관리 체계화를 위한 동물등록 정보 현행화 등도 주목할 만한 주요 내용들이다.

이견희 회장님의 동물사랑과

역지사지(易地思之)에 대한 연상(聯想)

필자가 KBS 보도본부에서 경제부장직을 맡아 일할 때 운 좋게 얻어들은 일화가 있다. 故 이견희 전 삼성 회장님의 생존 시, KBS가 어렵사리 이 회장 신년인터뷰 기회를 잡게 돼 기자를 서울 한남동 ‘승지원(承志園)’으로 보내 녹화를 해왔다. 인터뷰를 앞두고 편하게 얘기를 나누는 자리에서 본인이 왜 개를 아끼고 늘 가까이 두는지를 설명했다고 한다. “아끼는 개를 잘 관찰해 보면 그 녀석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불편한 게 없는지, 나한테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된다.

말 못하는 개의 마음과 생각을 읽을 수 있게 된

다면, 하물며 말을 하는 사람의 마음이야 당연히 더 잘 알 수 있지 않겠는가?” 지극한 동물 사랑의 표현이자, 비범하고 심오한 인재관리 철학을 던지시 내비친 절묘한 메타포(metaphor)였다.

맹자의 <이루편(離婁編)>에 나오는 “역지즉개연(易地則皆然)”이란 표현에서 비롯된 “역지사지(易地思之)”는 알 만한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아는 고사성어이다. 반려견과 관련된 故 이견희 회장에 대한 오래 전 일화를 인용하면서, 문득 떠오른 말이 “역지사지”다. ‘상대방의 처지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이해하라’는 이 말의 참뜻을 반려동물사랑과 생명존중에 확대, 승화시켜 보면 어떨까? 상대방 사람의 처지를 뛰어 넘어, 우리의 가까운 가족이자 친한

동무가 되고 있는 반려동물의 입장으로 돌아가 그들의 기쁨과 아픔을 함께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마음가짐 말이다.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ICKC)가 올해 주요 역점 사업의 하나로 ‘동물사랑 및 생명존중 운동’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세계태권도연맹(WT), 대한태권도협회(KTA), 서울특별시수의사회와 함께 온 지구촌에서 태권도를 연마하는 청소년들에게 따뜻한 동물·생명사랑 정신을 보급, 심화시켜 나가자는 취지다. 이 운동에 동참하는 젊은 태권도인에게 이견희 회장님의 ‘애견생각 읽기’와 맹자의 ‘역지사지’ 교훈도 함께 함양시켜 나가면 어떨까 하는 연상(聯想)은 지나친 상념의 비약일까? 



출처_현대해상 공식블로그



출처_flickr.com

조정원 ICKC 총재, 단국대서 명예박사학위 받아 ... 선친 故 조영식 박사, 대한체육회 특별공로상 수상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World Taekwondo, WT) 겸 ICKC 총재가 단국대로부터 명예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단국대학교는 태권도를 통해 세계 스포츠 발전과 인류 평화에 헌신하고 있는 조정원 총재의 업적을 기려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정원 총재의 선친이자 '밝은사회 운동'의 창시자인 고(故) 조영식 경희학원장(1921~2012)은 대한체육회 특별공로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대한체육회는 1981년 유엔 '세계평화의 날' 제정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고 조영식 박사에게 교육을 통한 세계평화 증진이라는 생전의 공적을 인정해 대한민국 체육 발전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특별공로상'을 수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면을 빌려 대한민국 체육과 태권도 교육의 기틀을 마련했던 고 조영식 박사님의 공헌을 기리고 추모하며, 대를 이어 평화, 봉사, 소외계층 교육 등 전 세계에 올림픽 스포츠 태권도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헌신하는 조정원 총재의 명예박사학위 수여를 아울러 축하드립니다. _ ICKC 사무국



강 석 재

ICKC 이사, 세계태권도연맹 전문위원

故 조영식 경희학원장, 대한체육회 특별공로상 수상

고(故) 조영식 경희학원 학원장(밝은사회 운동 창시자)이 대한민국 스포츠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

아 '제68회 대한체육회체육상 특별공로상'을 수상했다.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홍)가 지난 2월 28일(월) 서울 올림픽공원 뮤즈라이브에서 개최한 제68회 대한체육회체육상 시상식에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및 밝은사회클럽 국제본부 총재가 참석해 고 조영식 학원장을 대신해 특별공로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에서 고인이 체육 교육을 통해 대한민국 스포츠계를 위해 헌신한 활동을 담은 추모 영상을 상영해 고인의 업적을 기리는 시간도 가졌다.

대한체육회는 고 조영식 학원장이 체육 교육을 통해 생전에 스포츠 분야에 이룬 현저한 공적을 높이 평가하고, 고인에 대한 추모의 의미를 담아 이번 특별공로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고 조영식 박사는 1921년 평안북도 운산에서 출생하여 2012년 사망하셨으며 1940년 일본체육대학

에 입학하고 1951년 대한민국 최초의 체육대학인 체육대학교 체육대학을 설립했다. 1981년 경희대학교 수원캠퍼스에 체육과학대학을 설립하고 1983년 세계 최초로 4년제 대학에 태권도학과를 설립했다. 조 박사는 1951년부터 경희대학교에 수많은 운동부를 직접 창단하여 기금까지 약 2만여 명의 지도자와 국가대표 선수를 배출하여 대한민국 체육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조 박사는 1970년대 중반 주요 세계 대학총장을 포함한 세계적인 석학들과 밝은사회(GCS) 운동을 시작하고, 1979년 밝은사회클럽 국제본부(GCS International)를 서울에 설립했다. 1981년 유엔 ‘세계평화의 날’ 제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조 박사는 교육을 통한 세계평화 증진에 크게 기여했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2020년 대한민국 체육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사람에 대한 추모와 공경의 의미로 공적을 재조명하는 차원에서 별도의 ‘특별공로상’을 제정하고, 초대 수상자로 고 조양호 대한탁구협회장을 그리고 2021년 고 이건희 IOC 명예위원을 선정한다.

대한체육회는 1955년 이래 대한체육회체육상을 제정하여 매년 체육인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시상식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 체육 발전 및 건강한 스포츠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ICKC 총재,
단국대에서 명예박사학위 받아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WT)·ICKC 총재가 지난 3월 7일(월) 단국대학교 용인 죽전캠퍼스 난파음악관 콘서트홀에서 명예이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조 총재가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것은 지난 1993년 대만 문화대학 명예법학박사 수여에 이어 이번이 열 번째이며, 국내 대학에서는 처음으로 명예박사학위를 받았다.

단국대학교는 “태권도를 통한 세계 스포츠 발전과 인류 평화에 헌신하고 있는 조정원 총재의 삶과 업적이 우리 대학교의 교시인 ‘진리·봉사’에 부합된다는 점에서 명예이학박사 학위를 수여하기로 했다”고 명예학위 수여 배경을 설명했다.

조 총재는 “광복 후 최초의 정규 4년제 사립대학으로 교육을 통한 인간 완성을 창학 이념으로 1947년 설립된 단국대학교로부터 명예박사 학위를 받게 되어 큰 영광이다”라고 소감을 밝히며 “앞으로도 올림픽 스포츠인 태권도를 통해 세계평화 증진과 보다 조화롭고 지속 가능한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 총재는 1974년 미국 페어리디킨슨(Fairleigh Dickinson)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 석사를 그리고 1984년 벨기에 루벤대학교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



▲ 선친인故 조영식 박사를 대신해 제68회 대한체육회 특별공로상을 수상한 조정원 ICKC 총재(右). 왼쪽은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

위를 받았다.

조 총재는 사회공헌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16년 전 세계 난민을 돕기 위한 '태권도박애재단(THF)'을 스위스 로잔에 설립하고 요르단 아즈락 시리아 난민 캠프를 비롯한 여러 곳을 지원하고 있다. 같은 해 WT는 자체 '태권도 케어스(Cares) 프로그램'을 만들어 소년원생, 마약 알코올 중독자, 가정폭력 피해 여자아이, 고아 등 저개발국 소외계층 어린이 지원 활동을 네팔, 스리랑카, 캄보디아, 부탄 등에서 전개하는 등 난민과 불우 청소년이 보다 나은 삶을 살면서 좋은 세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고 있다.

조 총재는 2004년 WT 총재에 취임한 이후 개혁 위원회를 설립하는 등 올림픽 스포츠 태권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태권도평화봉사단 설립 등 국제사회에 태권도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부단한 변화와 발전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태권도가 2028년 LA올림픽에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고 2020년 도쿄패럴림픽에 이어 2024 파리패럴림픽에서도 확대된 메달 종목으로 치러지게 되었다.



▲ 단국대로부터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한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 IKC 총재



'22.2.22. 남아공 요하네스버그한글학교 서른 살 생일



조 운 정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한글학교 교사

1999년 2월 22일, 처음 남쪽 아프리카 땅을 밟은 날 초록색 여권에 찍힌 스탬프 날짜. 새로운 세기를 앞두고 도착했던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어느덧 제2의 고향이 되었다. 한국인으로 태어나 이곳에서 자란 나의 아이들이 한글학교에 간 첫 날, 나는 어찌다 한글학교에 붙잡혀 버렸다. 특별활동 기타 연주반 선생님이 갑자기 이사하는 바람에 학생들이 마냥 앓아 있다는 것이었다. 그저 취미 생활로 주변 사람들과 나눴던 보잘것없는 실력으로 아이들을 마주했다. 어찌다의 연속은 10년 넘게 지속되었고 이제는 우연이 아닌 필연이라는 생각이 든다. 지금은 중학생들과 한국역사문화를 공부하면서, 토요일을 한글학교의 날로 여기며 지내고 있다.

1992년 2월 22일, 남아공의 인종차별정책 시절, 요하네스버그 다운타운 근처 요빌 지역의 St. Mark's Presbyterian Church에서 한인 교회를 기반으로 요하네스버그 한글학교가 개교했다. 한국과 남아공이 수교를 맺은 1992년 12월 1일 이전에는 왕래가 자유롭지 못했다. 인근 국가에 정착한 한인들은 거주국보다 교육 환경이 좋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학교로 자녀들을 보냈고 아이들은 금세 한국어를 잊었다. 수교가 성립된 후 찾아온 이민자들의 자녀들은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언어를 익혀야 했다. 한국어가 힘든 아이들과 영어가 어려운 아이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충돌과도 같았던 교류는 이중언어의 발달을 촉진했고 차세대들은 양국의 언어와 문화를 모두 섭렵하는 국제적인 인재로 성장하게 되었다.



▲ 요하네스버그 한글학교 기타연주반. 가운데가 필자.

영어의 인기는 그때도 지금처럼 뜨거웠던 모양이다. 외국어 학습에 치중했던 가정에서는 모국어를 소홀히 대하기도 했지만 언어 장벽을 느끼기 시작한 이상 부모의 교육관은 바뀔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는 초창기 한인들의 증언이기도 하다. 서로 다른 언어는 세대 간의 소통을 단절시키기 마련이 아닌가! 생업에 종사하는 부모와 떨어져 멀리 기숙학교에서 생활하거나 한인 공동체와 접할 기회가 적은 아이들은 자연스레 한국어와 멀어지기도 했다. 언어보다 더 큰 무게를 지닌 것은 정체성과 문화 인식이었으리라.

90년대 초·중반을 경험한 이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학생, 교사, 학부모의 세 교육주체의 협력과 조화가 그때나 지금이나 또 앞으로도 얼마나 중요한지 각인하게 된다. 평일 학교 공부 외에 토요일도 한글학교에 출석하느라 시간을 할애하고 숙제하느라 애쓰는 학생들, 취미라고 하기에는 책무가 무겁고 봉사라고 하기에는 전문성을 지녀야 하

는 교사들,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어 주말에도 한글학교에 자녀 등하교를 돕는 부모들. 교민 사회에서 자체 발생한다는 특성을 지닌 한글학교의 이와 같은 모습은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는 모습일 것이다. 한글학교(한국학교)는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의 부분 지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재외공관과 교민 단체의 협업과 지원 또한 큰 축을 이룬다. 글로벌을 외치며 세계화된 사회를 살고 있는 오늘날, 국내에 재외동포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알려지고, 인식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자, 이제 요하네스버그 한글학교 30주년 기념행사 현장으로 가볼 차례이다. 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규모가 큰 요하네스버그 한글학교는 아름다운 자연환경 속에서 100명이 넘는 학교 구성원들이 한인 차세대와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언어와 문화와 역사를 함께 공부하고 있다. 한글학교협의회 차원에서도 거점 학교의 역할을 수행하는 곳이다. 학교의 역사를 정리하며 과거를 발판으로 현재



▲ 요하네스버그 한글학교 30주년 기념행사

를 성찰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도모한다는 의미로 30주년 기념은 단 하루의 행사가 아니라, 2022년 한 해에 걸친 프로젝트로 기획되었다. 기념 사업은 동문 네트워크 구성, 졸업생과 재학생의 만남, 졸업 문집 제작, 학교 관련 자료 수집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생일은 좋은 날! 2022년 2월 19일 기념식은 서른 살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로 마련했다. 졸업생들의 축하 메시지를 받고, 외부 손님을 초청하고 선물도 마련했다. 학교에서는 “요하네스버그 한글학교 30주년 축하합니다” 큰 글씨 만들기 활동을 진행했다. 각 학급별로 개성 넘치는 글자를 하나씩 창작하여 축하 문구를 제작하는 일이었다. 마음을 하나

로 모으고 30년의 역사 속에 우리의 발자취를 남긴다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창의력과 협동심을 요하는 단체 작업이 더욱 의미 있게 느껴진 것은 코로나 기간 2년 동안의 온라인 수업 이후,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 함께 한 첫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감동과 재미가 넘치는 시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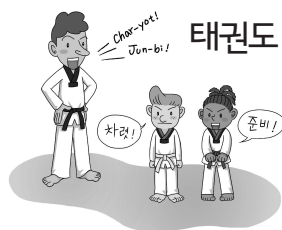
2022년 2월 22일은 요하네스버그 한글학교의 서른 번째 생일이자, 조 선생이 남아공 땅을 밟은 지 꼬박 22년을 채우는 날이다. 이처럼 좋은 날을 맞을 수 있다니 마음이 벅차다.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또 100년을 향해 여럿이 함께 다시 한 걸음을 내딛는다.



▲ 요하네스버그 한글학교 전경



▲ 요하네스버그 한글학교 역사문화반 학생들



2028년 올림픽에도 태권도 뜬다... 8연속 정식 종목 쾌거

국기(國技) 태권도가 2028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여름올림픽에서도 정식 종목 지위를 유지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139차 총회에서 2029년 여름올림픽에 선보일 28개 종목을 최종 확정해 공개하며 태권도를 포함시켰다.

태권도는 지난 1994년 프랑스 파리 총회에서 2000년 시드니 여름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돼 올림픽 무대에 데뷔했다. 이후 아테네(2004), 베이징(2008), 런던(2012), 리우(2016), 도쿄(2021), 파리(2024)까지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올림픽 정식 종목 지위를 지켜냈다. LA 대회까지 정식 종목으로 참여하게 돼 올림픽 무대에 8대회 연속 이름을 올린다.



▲ 지난해 열린 도쿄여름올림픽 태권도 경기 장면. [사진. 세계태권도연맹]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WT) 총재(ICKC 총재 겸임)는 “태권도가 8회 연속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참여할 수 있었던 건 전 세계 태권도 가족 모두의 성원과 노력의 결과”라면서 “태권도의 무도 정신은 변하면 안 되지만, 스포츠로서의 태권도는 끊임 없이 변해야 살아남는다. 다가올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도 더욱 새로운 스포츠 태권도를 선보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기사 출처] 중앙일보, 송지훈 기자, 2022/02/03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45275>

WT,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명예 태권도 단증 철회... 러시아와 벨라루스에서 WT 주최 대회 승인 불허

세계태권도연맹(WT, 총재 조정원)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태권도 명예 단증을 철회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조정원 WT 총재는 2013년 11월 한국을 방문한 푸틴 대통령에게 러시아 태권도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을 당부하며 명예 9단증을 수여했으나 ‘평화가 승리보다 소중하다’는 WT 비전 및 존중과 관용의 WT 가치에 어긋나는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무고한 생명에 대한 잔인한 공격을 강

력히 규탄하기 위해 철회 결정을 하였다.

또한 WT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방침을 존중하여 러시아와 벨라루스에서 연맹 주최 대회를 열지 않고 대회의 승인도 불허하기로 했다.

선수들은 WT 주최 및 승인 대회에 러시아와 벨라루스 국가명 대신 러시아태권도협회와 벨라루스태권도협회 소속으로만 참가할 수 있으며,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상징하는 국기와 국가 사용은 허용하지 않는다.

WT는 가능한 전쟁이 빨리 끝나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평화를 되찾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으로 성명을 마쳤다.

[기사 출처] 세계태권도연맹 보도자료, 2022/03/01

기사로 보는 한국어 소식



美 의원들

“연방정부 서비스 한국어 등 외국어도 제공해야”

미국 상원의원 19명이 연방정부의 정보와 자료를 한국어 등 다양한 언어로 제공할 것을 연방정부 측에 촉구했다. 이들 의원은 지난 2월 10일 메릭 갈랜드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고 존 오소프 연방 상원 의원실이 21일(현지시간) 전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영어가 주 언어가 아닌 사람들이 본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언어로 정부의 중요한 정보와 자료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은 연방기관에 언어 이용계획을 개정하도록 촉구하라”고 밝혔다. 연방기관 웹사이트에 언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연방정부의 언어 이용계획은 중요 자료를 다양한 언어로 번역해 배포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오소프 의원이 작성한 이 서한에는 엘리자베스 워런(매사추세츠), 코리 부커(뉴저지) 등 상원 의원 19명이 서명했다. 오소프 의원은 영어와 한국어로 작성된 보도자료에서 “최근 자료에 따르면 미국 내 6천700만 가구가 영어가 아닌 언어를 구사하며, 특히 집안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가족은 100만 가구에 달한다”며 “주민들이 정부 서비스를 한국어로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기사 출처] (애틀랜타=연합뉴스) 이종원 통신원, 2022/02/22

<https://www.yna.co.kr/view/AKR20220222089500009?section=search>

■ IKKC-대한태권도협회, '동물사랑·생명존중 운동' 업무협약 체결

지난 1월 27일(목)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소재 대한태권도협회 사무실에서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IKKC, 이사장 위호인)와 대한태권도협회(KTA, 회장 양진방) 두 단체가 '동물사랑 및 생명존중 운동'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양 기관은 이번 업무 협약을 계기로 태권도장 관원들을 대상으로 인성교육과 접목된 동물사랑 교육을 시행하고, 동물사고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전국의 도장에 배포하는 등 다양한 협력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KTA 양진방 회장은 “태권도장 관원들의 다수가 미취학 아동 또는 초등학교 저학년이고 태권도장에서 이들에 대한 인성교육은 중요하다. 동물사랑과 생명존중을 인성교육과 연계해서 실시하면 긍정적인 효과가 날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IKKC 위호인 이사장은 “반려동물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태권도장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한 동물사랑운동 뿐 아니라 반려동물에 대한 어린이들의 안전교육은 꼭 필요한 부분이다. 협회와 협력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 IKKC에서는 위호인 이사장, 박의근 재정위원장 외에 특별히 최영민 서울특별시수의사회 회장, 위혜진 대한수의사회 동물복지위원장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고, KTA에서는 양진방 회장, 성재준 사무총장 등이 참석하였다.

IKKC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대한태권도협회는 한국 태권도의 보급과 발전을 위해 1961년 설립되어 국내 17개 시도지부, 5개 연맹, 11개 해외지부를 총괄하는 단체이다. 국가대표 시범단 운영, 경기 시설·장비 공인, 선수 및 심판, 운영요원 양성, 대회 주최·주관, 도장 관리 등 태권도 종목에 관한 관리와 태권도의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과 육성을 맡고 있다.



▲ IKKC-대한태권도협회 업무협약식 기념촬영. 앞줄에 양진방 KTA 회장(左)과 위호인 IKKC 이사장. 뒷줄 왼쪽 세 번째부터 성재준 KTA 사무총장, 박의근 IKKC 재정위원장, 최영민 서울특별시수의사회 회장, 위혜진 대한수의사회 동물복지위원장 등.

■ IKKC 동물복지위원회 신설 및 정기회의 개최

지난 2월 7일(월), 서울시 마포구 IKKC 사무실에서 동물복지위원회 2월 정기회의가 열렸다. '동물복지위원회'는 동물사랑·생명존중 운동을 보다 효율적이고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난 1월 IKKC 산하에 신설된 위원회로서, 박의근 재정위원장이 동물복지위원장을 겸하고 있다. 이밖에 IKKC 임원과 운영위원, 주요 수의사회 인사, 미디어 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들도 함께 참

여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대한태권도협회, 서울특별시 수의사회 등과 함께 공동으로 시행 중인 <2022 반려동물사랑 영상공모전> 및 개최 예정인 <동물사랑·생명존중 시나리오 공모전>의 구체적인 일정, 내용 등을 주로 논의하였다.

본 공모전의 수상작 ICKC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 세계 태권도 수련생의 동물사랑, 생명존중 교육 콘텐츠로 활용될 예정이다.

앞으로도 ICKC 운영위원회와 별도로 정기적으로 동물복지위원회 회의를 열기로 하고 이날 회의를 마쳤다.



▲ ICKC 동물복지위원회 2월 회의. 앞쪽 가운데부터 강석재 ICKC 이사, 이호진 위원(전 주한호주대사관 호한재단 사무총장), 이호정 위원(세계한인여성협회 회장), 장정용 위원(한국이집트발전협회 수석부회장), 박의근 동물복지위원장, 위호인 ICKC 이사장, 심의표 위원(전 KBS 부산총국장).

■ 서울특별시수의사회,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등과 태권도 수련생 교육프로그램 개발 관련 회의

지난 2월 14일(월) ICKC 동물복지위원회는 서울특별시수의사회,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등 주요 수의사 단체의 인사와 청소년 태권도 수련생 대상 ‘동물사랑, 생명존중’ 교육프로그램 제작과 관련한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특별시수의사회 최영민 회장,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김용준 원장, 대한수의사회 위혜진 동물복지위원장, 홍원표 페토피아동물병원 원장 그리고 박의근 ICKC 재정위원장이 참석했다.



▲ 왼쪽부터 홍원표 페토피아동물병원 원장, 김용준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원장, 최영민 서울특별시수의사회 회장, 박의근 ICKC 동물복지위원장, 위혜진 대한수의사회 동물복지위원장

참석자 모두 태권도 수련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동물사랑, 생명존중 교육’의 필요성과 효율성에 공감했고, ICKC의 태권도 수련생 교육 구상이 잘 이루어진다면 성숙한 반려동물 양육 및 생명존중 문화를 이루는 데 크게 일조할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

이날 참석한 주요 수의사 단체에서 불특정 유소년, 청소년을 위한 5분 이내의 동물사랑, 생명존중 교육자료 개발을 검토하자고 협의하고 회의를 마쳤다.

2021년 후원하여 주신 분

2021년,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활동을 위해 보내주신 관심과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이 헛되지 않도록 소중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강석재, 강성구, 강영실, 강재근, 구병진, 김건길, 김복음, 김성열, 김소진, 김영규, 김용구, 김용준, 김은자, 김정수, 김정일, 김정택, 김진원, 김진태, 김창옥, 김홍석, 노승락, 류성식, 박경명, 박기연, 박미나, 박미화, 박원출, 박익근, 박청수, 배대환, 성호동, 유영찬, 유자호, 이병욱, 이상철, 이석복, 이석중, 이성호, 이영섭, 이웅선, 이정우, 이창걸, 이항구, 이현목, 이호정, 장정용, 전영섭, 정상설, 정순영, 정영숙, 정진화, 정현관, 조두연, 조춘연, 조평규, 추호석, 표재순, 허원준, 홍경자, 홍계화, 황경애, (재)아시아발전재단, (주)동아지질, (주)동우들, (주)루이제, (주)비아다빈치, (주)세협엔터프라이즈, 수풍산업(주), (주)신동, 제일이엔에스(주), (주)P&H

가나다순,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까지

총액 : 232,300,000원

2022년 후원하여 주신 분

강영광, 강영실, 강재근, 고륜희, 구병진, 김건길, 김복음, 김소진, 김영규, 김용구, 김용준, 김은자, 김정수, 김정일, 김정택, 김종근, 김진원, 김창옥, 김형중, 김홍석, 노승락, 문경태, 박기연, 박미나, 박미화, 박순호, 박원출, 박청수, 배대환, 성호동, 송수식, 유영찬, 유자호, 이명우, 이병욱, 이상철, 이석중, 이영섭, 이웅선, 이항구, 이호정, 이호진, 장정용, 전영섭, 정상설, 정영숙, 정진화, 정현관, 조춘연, 조평규, 추호석, 표재순, 홍계화, 홍미자, 황경애, (주)동우들, (주)루이제, (주)비아다빈치, (주)세협엔터프라이즈, 수풍산업(주), (주)신동, 양양운수(주), (주)포스젯한도, (주)포스코 ICT, (주)P&H

가나다순, 2022년 1월 1일 ~ 2022년 3월 9일까지

총액 : 26,150,000원

후원금 보내 주실 곳

신한은행 100-027-567461 국민은행 068801-04-248856 예금주 :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 본회는 기획재정부가 승인한 지정기부금 단체(기획재정부 고시 제2018-17호)입니다. 여러분이 내신 후원금은 '지정기부금'으로, 개인의 경우 「소득세법」 제34조 및 제59조의4에 의해 소득금액의 30%를 한도로 기부금의 15%(1천만 원 초과분은 3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24조에 의해 법인 소득금액의 10% 한도 내 전액 손비 인정됩니다.

ICKC
홈페이지
및
회원가입
안내

ICKC는 회원 여러분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위하여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ickc-seoul.net>입니다. 위 홈페이지에서 단체의 공지사항 및 최근 활동 현황, 한국어-태권도 관련 주요 뉴스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발행된 모든 소식지 역시 '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그리고 ICKC 회원 가입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있는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 주시거나 ICKC 사무국으로 연락 주십시오(연락처는 본 소식지 1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친절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International Center for Korean Culture(ICKC)

2011.08.16.	사단법인 인가 (문화체육관광부 제2011-29호)
2012.10.02.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2-166호)
2018.06.29.	지정기부금 단체 재지정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8-17호)

조직 구성	고문	강성구 前 MBC 사장 김용구 (주)신동 회장 박관용 前 국회의장 최불암 예술인	김길남 국제한민족연구재단 대표 박갑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조남철 前 한국방송통신대 총장, 아시아발전재단 상임이사
	총재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이사장	위호인 (주)뉴플러스컴 회장	
	이사	강석재 세계태권도연맹 전문위원 송종국 경희대학교 태권도학과 교수 조춘연 정일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박의근 재정위원장, (주)P&H 회장 이형모 재외동포신문 대표
운영위원	심의표 前 KBS 부산총국장 이효정 세계한인여성협회 회장 정순영 前 국회정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윤문원 작가, 인성교육 전문가 장정용 (사)한국이집트발전협회 수석부회장	
	감사	전영섭 변호사	박원출 前 한국조폐공사 사장

주요 활동 내역

- 2012년 조선족 자치주 설립 60주년 행사 연길 방문
- 2013년 서독 광부 파견 50주년 행사 개최
- 2014년 고려인 이주 150주년 기념 연해주 방문
- 2015년 파독(派獨) 광부와 간호사들의 땀과 눈물을 기리고 한·독 교류를 증진하고자 독일 뉘스라겐에서 한국음악회 공연
- 2017년 고려인 강제이주 80주년 우즈베키스탄 방문 및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께 태권도 명예 9단증 수여 · 타슈켄트 대학 태권도학과 신설 약속
- 2018년 저개발 국가의 태권도 · 한국어 교육을 위해 세계태권도연맹 등과 업무협약 체결 및 캄보디아 태권도 발전기금 전달, 타이페이 세계태권도품새선수권대회 참관
- 2019년 네팔 태권도 발전기금 전달, 면암 최익현 선생 묘소 참배
- 2020년 스리랑카 태권도 발전기금 전달
- 2021년 다문화가정 청소년 태권도장 등록 원비 지원 사업
- 2022년 대한태권도협회(KTA)와 전국 태권도장 수련생들의 동물사랑 · 생명존중 교육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이외 재외동포유학생 장학금 수여, 정기적인 소식지 발간(분기별) 및 국내 · 외 문화탐방, 포럼 및 세미나 개최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ICKC는 한국어와 태권도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의 국제교류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2022년부터 세계태권도연맹, 대한태권도협회, 서울특별시수의사회와 함께 전 세계 태권도 수련생을 대상으로 '동물사랑 · 생명존중 운동'을 의욕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후원을 바랍니다.



2022반려동물사랑
영상 공모전



2022 반려동물사랑 영상 공모전

공동주최

대한태권도협회
KOREA TAEKWONDO ASSOCIATION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International Center for Korean Culture(ICKC)



서울특별시수의사회
Seoul Veterinary Medical Association

공모주제

- 반려동물과 함께 하는 행복한 일상
- 사랑스럽고 감동적인 경험
- 재미있고 흥미로운 에피소드 등

공모목적

- 대한태권도협회(KTA) 소속 국내 태권도장 수련생 동물사랑·생명존중 교육용
- 세계태권도연맹(WT) 소속 해외 태권도장 수련생 동물사랑·생명존중 교육용
-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ICKC) 유튜브·SNS 콘텐츠로 활용

응모자격

-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인 누구나

접수기간

- 2022년 4월 1일(금) ~ 2022년 4월 30일(토) 18:00 까지

응모방법 및 제출자료

- 이메일 접수 : hangyobon@gmail.com
- ① 참가신청서 1부 ② 서약서 1부 ③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④ 출품 영상물
- 참가신청서, 제출 유의사항 등은 ICKC 홈페이지(www.ickc-seoul.net)
- 또는 공모전 사이트 위비티(www.wevity.com)에서 확인

제출 영상 규격

- 분 량 : 30초 ~ 3분(180초) 내외
- 파일명 : 이름(팀명)_영상제목
- 파일형식 : AVI, MPEG, WMV, MP4 등 동영상 파일

시상내역 : 총 14작품(총 상금 1,200만원)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300만원(1편)	200만원(1편)	100만원(2편)	50만원(10편)

* 시상인원은 변경 될수 있으며, 심사결과 적합한 작품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작품심사 및 시상

- 심사일정 : 2022년 5월 2일(월)~5월 15일(일)
- 심사발표 : 2022년 5월 18일(수) / 개별통보 및 ICKC 홈페이지 공고 예정
- 시상 일 : 2022년 5월 25일(수)
- * 심사, 발표, 시상 일정은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가능

문 의

-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ICKC) 영상 공모전 담당자
- ☎ 02)2285-1070 / e-mail : hangyobon@gmail.com
- 공모전 대외활동 사이트 : 위비티 https://www.wevity.com